

방 / 역 / 분 / 야

# 청정 돼지 생산으로 국제 경쟁력 높여야...



김봉환 교수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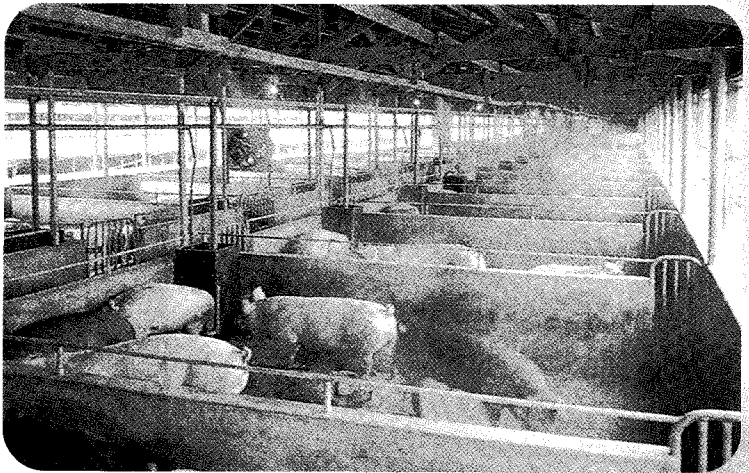
구제역 발생으로 돈육의 대일 수출이 전면 중단된 사건이 발생한지도 어언 9개월이 지났다. 만약 수출이 중단됨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양돈 경기는 지금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 교역규제대상 질병의 방역 없이는 양돈의 살 길이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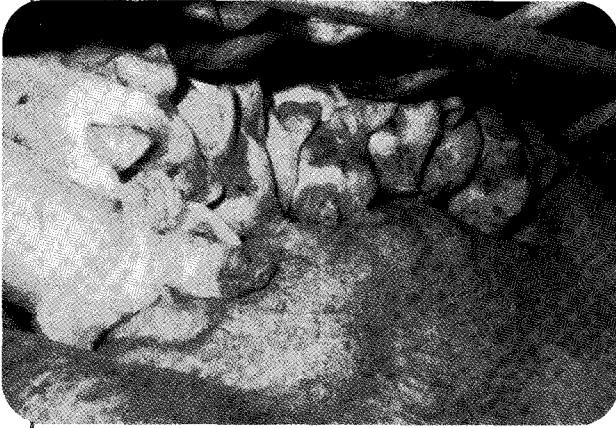
대일 돈육수출이 중단되자 우리 모두는 생산조절을 과감

히 하여야 앞으로 닥쳐올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박멸을 조기에 달성하여야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3~4월에 수출물량을 전량수매하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돼지 이동이 금지되니 여타지역의

▶영세농으로는 항구적인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양돈업은 생명산업이므로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양돈을 자격을 갖춘 양돈인 들이 경영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 하다.





◀현재의 농림부 가족위생과 조직이나 방역 및 검역체계시스템, 지방 가족위생시험소 조직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어 국가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돈가는 구제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모든 감축은 고사하고 후보돈 품귀현상이 일어난 사실은 비밀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 감축하면 나는 반대로 후보돈을 확보하여 한탕을 노려야 한다는 기회심리가 오늘의 난국을 초래하는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 구제역이 발생한 몇 달 후에 오히려 돼지 사육두수 특히 번식돈이 늘어난 나라는 역사상 우리 나라 뿐이었다.

교역구제대상 질병인 돼지 콜레라와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돈육의 수출이 전면 중단되어 야기된 현재의 돼지 파동은 만약에 우리가 돼지콜레라를 박멸하고 구제역의 유입을 차단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현상이었다.

전국이래 문제되었던 가장 심각한 돼지질병인 돼지콜레

구조적 문제와 양돈인의 의식구조가 더불어 살아야하는 국제적 상황변화를 대처할 수준에 미달하였었고 이런 이유등으로 범국가적 질병 방역정책이 현장에 접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질병의 근절과업은 수박 겉 핥기가 되었었다.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방역분야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시에 이의 타개책을 짚어보았다.

### 1. 사육규모가 영세한 양돈장이 많다.

사육규모나 사양방법이 초현대적인 양돈장이 있는가 하면 원시적인 소 두수 양돈농가가 있어 돼지 방역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소 두수 양돈농가의 경우 질병방역의 사각지대로 불리울 만큼 방역에 대해 무관심하며 언제라도 양돈을 그만둘 수도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양돈전반의 흐름이나 전망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아 문제점이 되고 있다. 소 두수 양돈농가의 경우 아무런 구애 없이 돼지를 입식할 수도 있고 또 쉽게 그만둘 수도 있어 주변 농장의 항구적 질병방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영세농으로는 항구적인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양돈업은 생명산업이므로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양돈을 자격을 갖춘 양돈인 들이 경영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WTO 체제하에서는 위생·방역·환경보존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덕목이기 때문에 소일 삼아 몇 마리 키우는 양돈의 시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여야 한다.

모든 양돈인은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여 같은 배에 탄

공동체로서 방역활동, 생산조절, 건전한 소비문화 창조를 위한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방역분야에 대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하는 제도적 장치(자조금제도 등)를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

있으며 유행성설사나 전염성 위장염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기타 감염성 질병에도 쉽게 노출되는 취약점이 상존하고 있다.

양돈단지의 노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상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한다. 단

로 종돈을 통한 질병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생상태가 우수한 종돈장에서 생산된 유전형질이 우수한 종돈이 보급되어야 하나 종돈장의 난립 등으로 우수종돈의 선택이 어렵게 되어 있다. 종돈위생이나 종돈의 호



지금과 같은 종돈의 무분별한 수입은 질병방역에 가장 큰 문제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국내 종돈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하루 속히 지양되어야 한다. 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소를 활성화하여 능력이 검정된 종돈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여러 종돈장의 돼지를 입식하여 검정함으로써 문제될 수 있는 질병 이를테면 복합호흡기질병이나 피부병, 기생충성 질병 등에 대한 조치 등이 철저히 다루어져 우리 풍토에 적합한 종돈의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농장검정을 확대하여 이를 보완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 2. 양돈의 단지화 및 양돈장의 밀집

양돈장의 가용면적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양돈장이 밀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환경공해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양돈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경영이 부실하거나 방역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질병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복합호흡기질병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지 내 농가가 각기 일관생산을 하는 양돈형태에서 벗어나 공동운영 또는 사육단계별 임무분담 등 양돈기술 전문화·분업화를 지향하여 경쟁력이 있는 단지로 거듭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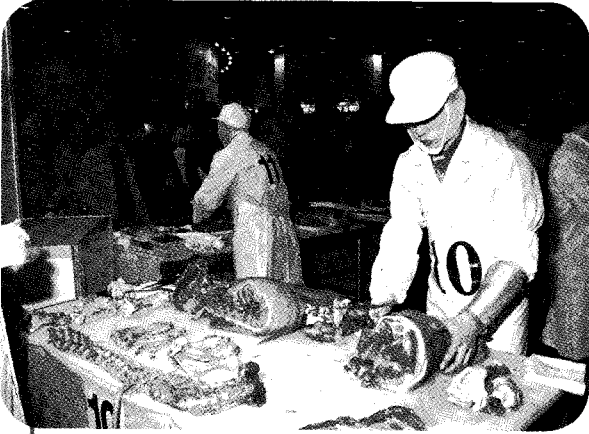
## 3. 돼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종돈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해마다 종돈의 수입이 어느 나라보다 많으

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종돈을 통한 질병의 전파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떨어돼지 등이 이동제한 없이 전국을 누비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오제스키병이나 돼지생식기호흡기질병(PRRS) 같은 병은 주로 종돈을 통하여 전파된 사례이며 소위 떨어돼지에 의한 전파위험이 많은 질병이다.

비육돈의 출하는 물론 돈육의 유통도 무원칙적으로 이



◀도축돈의 위생상태는 농장 위생상태와 직결됨으로 도축돈의 위생점검사항이 농장에 바로 피드백되어 위생개선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며 농장검정을 확대하여 이를 보완하는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한다.

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돈육의 생산 없이는 양돈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으므로 양돈장에서 위생적 사육은 물론 도축장 위생이 강화되어 위생적으로 품질이 보장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비위생적인 도축장은 조속히 정리되어야 하며 종합처리능력이 있는 위생적인 도축장이 생산지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출하되는 돼지의 이동거리 제한 조치라든지 산지도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예컨대 김해에서 생산된 돼지가 왜 서울까지 와서 도축되어야 하며 경기도에서 생산된 돼지가 경상도에 내려가서 도축되는 사례가 일어나도록 계속 방치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덴마크에서는 생산지에서 50 km를 벗어나 도축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도록 규정되어 산지도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거울삼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산지중심 도축은 도축돈의 장거리 이동에

#### 4. 도축장을 통한 농장의 위생관리 체계가 없다.

양돈장에서 생산된 돼지는 모두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 가공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품질이 우수한 위생적인 돈육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위생적인 돈육의 생산공급은 우선 양돈장에서 위생적으로 돼지를 생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축돈의 위생검사 결과가 생산현장에 접목되지 않고 있어 일반 농장의 위생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전반적인 위생향상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축돈의 위생상태는 농장 위생상태와 직결됨으로 도축돈의 위생점검사항이 농장에 바로 피드백되어 위생개선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루어져 질병전파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돈·비육돈·돈육의 흐름이 무질서하고 무원칙적이기 때문에 양돈장 질병방역이 아주 어렵게 되었다.

지금과 같은 종돈의 무분별한 수입은 질병방역에 가장 큰 문제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국내 종돈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하루 속히 지양되어야 한다.

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소를 활성화하여 능력이 검정된 종돈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여러 종돈장의 돼지를 입식하여 검정함으로써 문제될 수 있는 질병 이틀테면 복합호흡기질병이나 피부병, 기생충성 질병 등에 대한 조치 등이 철저히 다루어져 우리 풍토에 적합한 종돈의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전파차단 등 질병방역에 절대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환경보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 5. 질병방역에 대한 양돈인의 의식이 부족하다.

양돈의 특성상 질병의 방역관리는 발병 후 질병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경제적이며 방역관리 절차도 치료보다는 손쉽다. 그러나 상당수 양돈인들은 질병의 예방은 청결, 소독, 차단방역, 백신접종 등 과외비용이 드는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질병방역에 대한 양돈인들의 의식이 공동체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어 농장단위 방역은 물론 지역방역이라든지 국가방역의 구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질병방역이란 한 농가가 흐트러지면 전체 농가가 큰 영향을 받게 됨으로 개개 농장의 방역이 모든 농장방역의 기초가 된다. 병든 돼지를 헐값으로 매각한다든지 떨어돼지의 유통을 조금도 의아해하

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문제가 있다.

모든 돼지 질병은 돼지의 이동과 가장 큰 관계가 있으므로 건강한 종돈을 제외한 다른 돼지의 입식은 아예 없어야 한다. 종돈 이외의 건강한 돼지는 모두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것이 양돈의 기본덕목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 6. 국가방역조직이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

해외전염병의 유입차단이나 국내발생 주요질병에 대한 방역 체계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사건 발생 후 수습차원의 방역활동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의 농림부 가축위생과 조직이나 방역 및 검역체계시스템, 지방 가축위생시험소 조직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어 국가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새 시대 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인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WTO 체제하의 축산물의 교역은 확대일로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있어야

하며 돈육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생산 가공 유통현장에 접목되어야 한다.

둘이켜 보면, 구제역이 발생하여 대일 돈육수출이 전면 중단된 사건은 우리에게 질병방역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값비싼 교훈이었다. 그토록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을 즈음에 구제역이 겹쳐 많은 양돈인들이 크게 좌절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돼지콜레라의 경우 예방접종만 철저히 하면 병의 발생이 종식된다는 엄연한 사실이 최근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왜 우리가 그런 일을 일찍이 마무리하지 않았나 하는 한스러움이 있다. 국가방역당국은 물론 생산자 단체나 양돈인들은 방역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의 타개를 위하여 공동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양돈인들은 내 농장 돼지의 건강관리는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선 자기농장 돼지에 문제되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위기 타개책이라는 것을 통감하기를 바란다. **양돈**